

축 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북게 물들기 시작하는 나무들은 곧 그 잎마저도 떨구고 겨울을 맞이합니다. 가진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나무의 지혜를 배우는 계절에 팔공산 관봉에 있는 보물 제431호 석조약사여래불의(일명/갓바위)에 대한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한 뮤지컬 “천년혼” 공연이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리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을 통해 불교문화를 재조명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J&C코리아뮤지컬컴퍼니 정광진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출연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선보일 창작뮤지컬 “천년혼”은 우리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현시대의 삶을 담아내 걸맞는 뮤지컬로 창작 극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 활동 자체가 주는 감동도 크지만 지역 역사 문화자원 발굴과 교육적 효과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의 뮤지컬이지만 모든 국민에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 공연이 성공적으로 회향되어 불교문화예술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4. 11. 5 .